원인Ⅱ: 잘 다스리려는 의지가 없다

아! 전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재주로서 무거운 부탁을 받아 시작이 맑고 밝았으니, 어찌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어 모든 왕들 가운데 뛰어나려는 뜻이 없었겠습니까? 다만 그 뜻을 받들어 감당할 신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큰 계획이 마땅치 않았기에 옳다고 여긴 일을 시험하여 보았으나 실적이 없고, 의론이 여러 갈래여서 실질적인 은덕은 나타나지 않았고, 조정의 대신들 사이의 말은 들을 만하나 대궐문 밖으로 혜택이 퍼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하의 마음이 슬퍼져서 애초부터 다스릴 수 없다는 탄식이 생겨 큰일을 하려는 뜻이 막혀 버렸습니다.

이렇듯 전하 뜻이 이미 막혀버려 다시 좋은 정치를 도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몸이 풀려 먹고 마시는 것만 일삼았습니다. 남을 위하여 벼슬을 선택해 주고 한가로이 놀면서 날을 보냈습니다. 한 관직에

오래 있게 되면 병을 핑계로 다른 자리로 옮겨가니, 다만 창고의 녹봉만 축내면서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2백 년 사직(社稷)[1]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지만, 전하의 밝으심으로 환히 알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고, 전하의 능력으로 떨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손을 써서 한번 구해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전하께서 어찌 도리에 벗어나게도 한 나라를 가볍게 여겨서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해설

이 부분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두 번째 원인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는 임금의 의지가 없음을 주장하는 말이다.

여기서 잘 다스린다는 것은 보통의 나라처럼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옛 성인처럼 태평성대로 다스리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다소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어찌 보면 선조임금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하겠다. 앞서 퇴계 이황이 『성학십도』를 작성해 올렸고, 또 선생 자신도 『성학집요』를 써서 올린 것만 보아도 그런 기대를 알 수 있듯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선조임금에게 영특함이 있어

1 사직(社稷): 나라 또는 조정

그럴 가능성을 보았던 것 같다.

그런데 선조는 당시까지 그러지 못했다. 그 원인을 대놓고 비난할 수 없어 좌우의 신하들의 무능과 나태의 영향 때문이라고 에둘러 지적하고 있으나, 아무튼 선조 자신에게 나라를 잘 다스려보려는 의지가 없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실 임금이 이 글을 읽기에 다소 민망스럽긴 하지만, 임금에게 충직한 말을 올린다는 취지에서 볼 때 다소의 무례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런 자세는 선생만이 아니라 조선시대를 통틀어 볼 때 보통 이상의 뜻있는 선비나 신하들은 이렇게 상소를 올렸다. 물론 더 심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언론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나 관리들의 독단을 견제하는 장치로 사헌부 · 사간원 · 홍문관과 같은 삼사(三司)를 두었기도 하지만, 벼슬하지 않은 선비들도 상소를 올려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 상소는 임금의 요청에 의하여 올리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본문의 말미에 "2백 년 사직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라는 지적이다. 조선의 개국에서 선생이 생존했을 당시까지의 기간을 대충 2백 년으로 잡아 그때에 와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선조임금이 다시 나라를 잘 다스리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때문에 선생은 맹자가 말한 왕도정치(王道政治)를 목표로 선조가 자포자기(自暴自棄)하지 말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는 의지를 갖도록 촉구하고 있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朝紳之間에 言語可觀이나 而闕門之外에 惠澤不流라.
조 신 지 간 언 어 가 관 이 궐 문 지 외 혜 택 불 류

» 어휘 풀이

朝紳: 벼슬이 높은 관리. 朝는 조정, 紳은 예복의 띠를 말함/之: 어조사/間: 사이/言語: 의사 또는 주장이나 말/可: ~할 수 있다/觀: 보다/而: 접속사로서 어조사/闕門: 대궐 문/外: 바깥/惠澤: 혜택/不: ~하지 않다/流: 흐르다

» 문장 구조

1. 而를 중심으로 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역접의 구조이다.
2. '朝紳之間, 言語可觀'의 원래 문장은 '可觀言語於朝紳之間'으로 주어+동사+부사구로 된 구조인데, 주어는 왕 또는 사람으로서 생략되어 있다. 부사구 속의 전치사 於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朝紳之間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면서 전치사 於가 생략되었다. 따라서 동사는 觀이고 목적어는 言語이며 可는 가능을 나타낸 조동사이다.
3. '闕門之外, 惠澤不流'의 원래 문장은 '惠澤不流於闕門之外'로 주어+동사+부사구로 된 구조로, 부사구 속의 전치사의 목적어인 闕門之外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면서 전치사 於가 생략되었다. 따라서 주어는 惠澤, 동사는 流이고 不은 流를 부정하는 조동사이다.

» 해석

조정의 대신들 사이에서 말은 들을 만하나 대궐문 밖으로 혜택이 퍼지지 못했다.